

주세붕(周世鵬)의 도동곡(道東曲) 연구

박현숙*

1. 들어가는 말
2. 연구사 검토
3. <도동곡>의 향유방식
4. 조선의 도동론과 <도동곡>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도동곡(道東曲)>이 백운동서원의 향사(享祀)에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죽계지』에 수록된 <제식(祭式)>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례 속에서 <도동곡>의 역할과 의미를 구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향사는 주현 문묘(文廟)의 석전의(釋奠儀)에 준하여 거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동곡>이 9장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죽계지(竹溪志)』에 수록된 <제식(祭式)>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된 석전의례를 비교하고, 실제로 향사 의식 속에서 <도동곡>이 어떤 방식으로 가창되었는지를 논의하였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도동곡>은 백운동서원에서 거행된 봄, 가을의 향사 의례절차 중, 신에게 잔을 올리는 헌작의 과정에서 불린 것이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에서 3장,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에서 3장, 세 번째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시간강사.

잔을 올리는 종헌에서 3장을 불렀다.

<도동곡>은 조선시대 중종 때 확립된 조선 도학계보에서 정몽주를 유학의 조종(祖宗)으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안향을 조선유학의 조종으로 평가한 주세붕의 견해를 담고 있다.

<도동곡>의 내용은 유교경전의 문구를 가져다 구성한 것이지만 제사의 대상이 되는 안향(安珦)의 공덕(功德)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 특히 <도동곡>에 수록된 도통(道統)론이 안향과 연계될 때 ‘유가적 도의 전승계보’라는 일반적 의미를 뛰어 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경기체가(景幾體歌), 서원(書院), 주세붕(周世鵬), 도동곡(道東曲), 문묘(文廟), 도통(道統),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도동곡(道東曲)>이 백운동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거행되는 향사(享祀)의 의식요(儀式謠)로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죽계지(竹溪志)』에 수록된 <제식(祭式)>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례 속에서 <도동곡>의 향유방식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주세붕의 경기체가는 <한림별곡>과 비교했을 때 그 형식적 차이가 너무 커서 경기체가인 노래들과 경기체가가 아닌 노래들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여겨졌다¹⁾. 이 때문에 주세붕의 경기체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창사방법과 형식적 특성, 장르적 변이 혹은 전환적 특성을 구명하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도동곡>을 연구하였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향사에서 가장된 의식요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노래의 향유방식을 대부분 한림별곡이 연행되었던 상황이나 궁중연향에 사용된 악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조규익, 『고려속악가사 · 경기체가 · 선초악장』, 한샘, 1993, 153면.

제례에서 사용한 의식요를 유흥적 상황에서 집단적 흥을 고취하기 위해 연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도동곡>의 향유방식이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의식요인 <도동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연행되었던 향사의 제식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통상 서원이나 사우(祠宇)의 향사는 주현(州縣) 문묘(文廟)의 석전의(釋奠儀)에 준하여 거행되었기 때문에²⁾ 행례(行禮) 중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는 노래를 사용한 만큼 의례 절차를 주현의 문묘 석전을 준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도동곡>의 향유방식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례악장을 사용하는 문묘의 석전과 비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본고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된 중사(中祀) 중 하나인 문묘의 석전의례와 향사의 제식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도동곡>의 향유양상 및 가창방식과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동곡>의 의미를 향사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데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죽계지』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2. 연구사 검토

일반적으로 경기체가를 연구할 때 대상 작품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창작되었다고 추정되는 <한림별곡>부터, 조선 철종(哲宗)때 민규(閔圭)가 지은 <충효가(忠孝歌)>까지 대략 350여 년간 향유된 작품 중 남아 있는 25 작품을 거론한다³⁾.

여기에 2008년 김영진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고 박경주에 의해 연구된 이복로(李福老)의 경기체가 <화산별곡(花山別曲)>과 <구령별곡(龜嶺別曲)>

2)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9, 1999, 174면.

3) 임기중 외 5인, 『경기체가연구』, 태학사, 1997, 18면.

김창규, 『한국한림시연구』, 역락, 2001, 57~137면.

을 더하여도⁴⁾ 현존하는 경기체가 30작품이 안 된다.

안환⁵⁾에서 시작된 경기체에 대한 주된 논의는 명칭, 형성, 형식, 갈래적 성격 등 경기체가 연구에 필요한 논의의 준거 틀을 제시하는 일반론의 측면에서 거론되었다.

특히 이명구는 경기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경기체가가 ‘신흥사대부의 득의에 찬 세계관’을 노래하는 양식이라고 정리하였다⁶⁾.

조동일은 이명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그 토대위에서 경기체가의 갈래를 논하면서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신흥사대부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개별적 사물을 열거하면서 생성된 흥취를 포괄적인 언어와 감탄으로 고양하는 교술장르에 속한다고 정리하였다⁷⁾. 이 논의는 경기체가의 담당층, 연행 성격, 세계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후 이루어진 경기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러한 논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박경주는 경기체가의 담당층을 신흥사대부로 규정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경기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연행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⁸⁾. 박경주의 이러한 성과는 경기체가의 각 작품이 담당층과 연행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체에 대한 일반론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 분야는 경기체가의 가창방식과 소멸원인에 대한 고찰이다. 조규익⁹⁾, 박일룡¹⁰⁾, 한창훈¹¹⁾, 윤석현¹²⁾ 등은 연행에서 합창으로 향유되던 경기체가가 사립과

4) 박경주, 『상촌 이복로의 <화산별곡>과 <구령별곡>이 지닌 16세기 경기체가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40, 2011.

5) 안자산,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6)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1984.

7)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247~272면.

8) 박경주, 『경기체가연구』, 이회문화사, 1996, 27면.

9) 조규익, 『주세붕의 국문노래 연구-장르적 특질과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어문교육』1, 1993.

조규익, 『조선조 도의가택의 일단(一):주세붕에서 고을척까지』,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3, 1997.

10) 박일룡,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과 그 변화』, 일지사, 『한국학보』46, 1987.

11) 한창훈, 『경기체가의 형성과 변모를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작가층과 작품에 나타난

의 성장과 함께 감정의 직정적 표현에 제한을 받으면서 소멸해 갔다고 보고 있다.

이중 박일용의 연구는 경기체가를 향락적 기풍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체가가 성리학자 퇴계의 시관에 접근한 것으로 구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경기체가의 소멸원인을 가창방식의 변화에서 찾은 것으로는 류속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류속영은 악곡 상 완결된 형태인 후절이 전절로부터 독립되어 나오면서 경기체가의 형식이 쉽게 무너졌다고 보았다¹³⁾.

이처럼 경기체가 일반론이나 연행양상, 혹은 소멸동인에 대한 논의가 성행했던 것에 비해 경기체가의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논의는 한림별곡을 제외하고 그 연구가 논쟁을 유발할 정도로 축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경기체가와 관련된 주세붕에 대한 평가는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조동일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경기체가를 자기 생활표현을 위한 사적 인 문학으로 키웠다. 안축의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에서 제시한 길을 되찾아 왕조창업을 칭송하는 나라의 노래로 이용되던 경기체가를 본체도로 되돌려 놓았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돌아가 자연에 은거하는 생활을 문제 삼고 윤리도덕을 내세우는 주제도 담은 작품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하여 조선시대의 경기체가가 향락적인 고려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내용면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1541년(중종 36)에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서원을 처음 세우고 경기체가를 여러 편 지었다. <도동곡(道東曲)>은 도학을 동방에 전한 안향(安珦)을 기렸다. <육현가(六賢歌)>는 송나라 때의 도학자 여섯 사람을 칭송한 노래이다. <엄연곡(嚴然曲)>에서는 군자의 굳건한 기상을 칭송했다.

‘풍류’의 성격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14, 1997.

12) 윤석현, 『경기체가의 소멸동인 소고: 16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송실어문학회, 송실어문』11, 1994, 133면.

13) 류속영, 『16세기 경기체가 후절의 분리독립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20, 2010, 343면.

<태평곡(太平曲)>은 공자를 기렸다. 경기체가를 교화를 베풀고 훈민을 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는데 뜻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작품 자체에 약점이 있어 거둔 효과가 의심스럽다. 대단한 권위를 지닌 내용을 산만한 형식과 경색된 표현으로 나타내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내실이 부족한 약점을 확대시켜 경기체가의 장래를 어둡게 했다고 할 수 있다¹⁴⁾.”라고 하여 주세봉의 작품이 대단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주세봉의 경기체가가 유교의 경전을 인용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세봉의 이러한 시작(詩作) 방식은 “주세봉의 시가에 노출된 이념적 언표들은 16세기 전반 시가사의 새로운 움직임 중의 하나로 바라보아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황을 정점으로 하는 영남 사림들의 시가론이 나오기 이전, 사적 맥락의 한 부분에 주세봉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문시가는 재음미 되어야 할 것이다”¹⁵⁾라고 평가한 길진숙조차 노래 자체에 대한 흥미는 반감된다고 평하는¹⁶⁾ 원인이 된다. 조규익이나 최용수 역시 주세봉의 문학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일 뿐 개성적 미의식의 발로로서의 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¹⁷⁾.

전재강은 주세봉의 문예관을 효용적 문예관과 심미적 문예관으로 나누고, 주세봉이 객관의 집단을 향했을 때는 효용적 문예관을, 주관의 개인을 향했을 때는 심미적 문예관이라는 이원성을 보인다고 하였다¹⁸⁾. 최용수는 주세봉이 경기체가를 선택한 것은 경기체가의 기본 속성인 찬양과 연행에서의 집단창 방식이 풍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동곡>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도동곡>이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14)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10, 307~309면.

15) 길진숙, 『주세봉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11, 1997, 109면.

16) 위의 글, 108면.

17) 조규익, 『주세봉의 국문노래 연구-장르적 특질과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웅진어문학 창간호』, 1993, 160면.

최용수, 『경기체가에 대한 주세봉의 인식태도』,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38, 2001, 260면.

18) 전재강, 『주세봉의 문예관과 그 시가의 성향』, 한국어문학회, 『어문학』65, 1998, 294면.

가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논의에 반영한 연구자는 조규익, 김문기, 우응순 정도이다.

조규익은 <도동곡>을 의식가(儀式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도동곡>의 가창방식을 유흥적 상황에서 흥을 고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불렀던 경기체가(景記體歌)의 특성에서 찾고, 총 9장인 <도동곡>이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난 뒤 헌관이 자리에 돌아온 뒤에 가창된 것¹⁹⁾으로 해석하여 행례(行禮)와 관련한 해석상의 오류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김문기의 논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²⁰⁾.

우응순은, “<도동곡>은 서원에서 거행한 향사의 행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창이 이루어졌고, 주세붕의 <도동곡>에는 주세붕이 안향을 도통(道統)으로 추존하려는 뜻이 있었다”라고 간단히 언급²¹⁾하여 본고의 논지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우응순은 주세붕과 황준량과의 논쟁을 분석하면서 황준량이 주세붕의 작품을 『죽계지』에서 산거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경기체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추정하였다²²⁾.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자들은 <도동곡>을 위시한 주세붕의 경기체가가 유교적 경전에서 나온 것으로, 유교적 이념 일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천착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유흥적 성격이 강한 경기체가를 사용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박일용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시대의 경기체가는 향락적 성향에서 벗어나 이황의 시관에 적합하게 변모하였다. 경기체가가 문체라면 “이념이 현실을 결정하는 측면이 강한 조선”²³⁾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서원의 향사에 경기체가를 의례의 절차에 넣어 <제식>을 확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과 이것이 꾸준히 유지된 것²⁴⁾은 납득하기 어렵다.

19) 조규익, 앞의 글, 154~155면.

20) 김문기, 『서원교육과 신재 주세붕』,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38, 2005, 18면.

21) 우응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황준량과의 논의의 중심으로』, 순천향어문학연구회, 『순천향어문논집』5, 1998, 299면: 304면.

22) 위의 글, 309면.

23)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이념과 그 현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청계, 2007, 171면.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계지(竹溪志)』에 수록된 <제식(祭式)>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례 속에서 <도동곡>의 향유방식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박경주의 주장처럼 경기체가의 각 작품들은 그 연행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도동곡>의 향유방식

유교 제의의 공통 구조는 크게 준비과정, 본 과정, 마무리 과정,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준비과정은 재계(齋戒)·설위(設位)·설찬(設饌)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① 강신(降神)·영신(迎神), ② 고축(告祝)·진폐(進幣)·진찬(進饌)·헌작(獻爵) ③ 흠향(歆饗)·강복(降福)·음복(飲福) 등으로 세분화된다. 마무리 과정은 송신(送神)·망예(望瘞)·납주(納主)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과정은 제사의 행례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본 과정에서 강신은 분향(焚香)을 통해 혼기(魂氣)가 감응하고, 강신주를 모사(茅沙)에 뿌려 체백(體魄)이 감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신이 내려오면 문밖까지 나가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영신(迎神)이라 한다. 신을 맞이하면 축(祝)과 여러 제물을 올려 신에게 바치는데 신은 이를 흠향하고 복을 내리고, 인간은 음복(飲福)함으로써 기복(祈福)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무리 과정인 송신(送神)은 제사를 마치고 신을 전송하는 것으로서, 신이 다시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망예는 송신한 다음 신의 물건을 신에게 보내는 일이다. 축문이나 지방 등을 불살라 하늘로 올리고 재는 땅에 묻는다²⁵⁾.

백운동 서원에서 거행된 향사의 행례 절차는 『죽계지』에 수록된 <제식(祭式)>²⁶⁾을 통해 알 수 있다.

2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무형문화유산자원1-도동곡, 창극, 옹기장』, 2013, 8면.

25)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182~183면.

<제식(祭式)>

- 재배례(再拜禮)만 행한다.
- 향을 올리는 예를 행한다.
-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다.
- 인도하여 문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린다.

아동이 <죽계사(竹溪辭)> 3장을 노래한다.

- 다음에 배위(配位) 앞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린다.
-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다.
- 초헌례를 행한다.
- 초헌관을 인도하여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 술잔을 올린다.
- 축문을 읽는다.
- 다음에 배위 앞에 나아간다.
- 술잔을 올린다.
- 축문을 읽는다.
-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다. 아동이 <도동곡(道東曲)> 수장(首章) 3장을 노래한다.

- 아헌례를 행한다.
- 초헌례와 같이 하고서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로 돌아온다.

아동이 <도동곡> 중장 3장을 노래한다.

- 종헌례를 거행한다.
- 아헌례와 같이 하고서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로 돌아온다.

아동이 <도동곡> 종장 3장을 노래한다.

- 음복하고 제육을 받는다.
- 나머지는 모두 향교(鄕校)의 제례와 같다.

26) 『죽계지(竹溪志)』, <행록(行錄)> 후(後), <제식(祭式)>. “只行再拜禮 ○行上香禮 ○引初獻官盥 ○引詣文成公神位前. 三上香. 童歌竹溪辭三章 ○次詣配位前. 皆三上香. ○引降復位 ○行初獻禮 ○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 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讀祝 ○次詣配位前 ○獻酌 ○讀祝 ○引降復位 童歌道東曲首三章 ○行亞獻禮 ○如初獻. 引降復位. 童歌道東曲中三章 ○行終獻禮 ○如亞獻. 引降復位. 童歌道東曲末三章 ○飲福受胙 ○餘皆如校禮”.

<제식>은 위에서 설명한 유교 제의의 각 단계 중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본 과정의 영신부터 헌작, 고축, 음복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영신의 과정에서 <죽계사> 3장을 노래하고, 3번 잔을 올리면서 <도동곡> 3장씩을 불러 3번 잔을 올리면서 총 9장을 부른 것이다. 이는 『죽계지』에 수록된 <여안정연서(與安挺然書)>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어서 정결한 희생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렸는데, 먼저 아동에게 <죽계사(竹溪辭)> 3장을 낭송케 하고 이어서 폐백과 제물을 바쳤으며, 다음으로 <도동곡(道東曲)> 9장을 3장씩 나누어 초헌·아헌·종헌 때에 노래하게 하였습니다²⁷⁾.

아동에게 <죽계사> 3장을 낭송케 하고 폐백과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죽계사>가 영신의 단계에서 가장된 것을 의미한다. <도동곡> 9장을 나누어 노래했다는 것은 초헌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도동곡 초장 3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초헌을 진행하면서 초장 3장을 부르고, 아헌을 진행하면서 중장 3장을, 종헌을 진행하면서 종장 3장을 가장했다는 것을 말한다²⁸⁾. 비록 서원의 향사에서 경기체가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주세붕이 이러한 의례를 규범으로 제식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의례에서 제례악(祭禮樂)을 사용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례악의 기능은 강신(降神)과 제사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이 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다.²⁹⁾ 이는 조선 시대 국가제사 중 대사(大祀)나 중사(中祀)에 악현(樂懸)을 설치하고 헌가(軒架)와 등가(登歌)를 두어 제사의 각 절차에 번갈아 연주하였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가를 연주할 때에는 악장을 부르기 때문에 등가의 악현도설에는 노래하는 사람 24명의 위치가 악기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³⁰⁾.

27) 『죽계지(竹溪志)』, <행록(行錄)> 후(後), <여안정연서(與安挺然書)>, “祀以潔牲 先令小童誦竹溪詞三章 陳幣薦俎 次歌道東曲九章 分歌三獻各三章”.

28)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9, 1999, 177면.

29) 위의 글, 184~185면.

30)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길례(吉禮)·아부악현도설(雅部樂懸圖說)> 등가(登歌), “歌二十四人 爲二行”

이들 24인은 악기 사이에 2줄로 서서 등가를 연주할 때 반주에 맞춰 합창의 방식으로 악장을 부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례악장은 아부악장 즉 아악을 사용하지만³¹⁾ 조상신에게 올리는 종묘의 제례악장은 세조 때 속부악장 즉 속악으로 대체되었다³²⁾. 이는 조상들이 평일에 들으시던 음악을 쓰는 것이 인정에 합치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에게 올리는 향사에서 제사를 받는 그들에게 익숙한 속악인 경기체가를 제례악으로 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제례악장은 제사의 각 절차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제례의 각 절차는 음악과 함께 시작하고 끝나게 된다³³⁾. 주세붕의 <죽계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신의 절차를 거행할 때 부르기 시작하여, 영신의 절차를 마칠 때 끝나고, <도동곡>은 초헌·중헌·종헌을 시작할 때 부르기 시작하여 절차가 끝날 때 노래도 끝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묘석전과 향사의 절차 및 음악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의례절차	문묘석전의 제례악 ³⁴⁾	백운동서원 향사의 제례악
강신·영신	영신:응안지악(헌가)	세 번 향을 올린다(강신절차): 죽계사 3장
고축·진폐·진찬·헌작	진폐:명안지악(등가) 진찬: 풍안지악(헌가)	
	초헌:성안지악(등가)	초헌례를 행한다~위차로 돌아간다: 도동곡 수장 3장
	아헌:성안지악(등가)	아헌례를 행한다~위차로 돌아온다:도동곡 중장 3장
	종헌:성안지악(등가)	종헌례를 거행한다~위차로 돌아

31)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길례(吉禮)·아부악장(雅部樂章)>
 32)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5, <인조(仁祖)조>2, 인조4년(병인, 1626) 윤6월, “世宗朝之雅樂變爲世祖朝之俗樂”.
 33) 박현숙, 『유교식 제례의 종교적 특성과 <풍운뢰우악장> 연구』,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문학과 종교』 16권 1호, 2011, 154~161면.
 34)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길례(吉禮)·아부악장(雅部樂章)>.

		온다:도동곡 종장 3장
흡향 강북음복	철변두:오안지악(등가)	
송신	응안지악(헌가)	

표 1. 제례절차 및 제례악

백운동 서원의 향사는 서원의 향사가 일반적으로 주현의 문묘석전을 준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위의 제식 맨 아래 향이 ‘나머지는 향교의 제례와 같다’고 명기해 놓은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행례의 전 과정이 향교의 제례 즉 주현의 문묘석전과 같았다면 첫 향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넘어가도 무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교대상을 주현문묘석전이 아니라 음악을 사용하는 중사(中祀)의 석전으로 하였다.

위의 <제식>을 보면 백운동 서원의 향사에는 석전(釋奠)과 달리 신에게 폐백을 올리는 진폐(進幣)와 음식을 올리는 진찬(進饌)의 절차가 없고, 기록은 영신의 절차에서 시작하여 음복의 절차로 끝난다. 또한 국가제사와 달리 헌가와 등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가창(歌唱)으로 제례악을 대신하였다. <죽계사>나 <도동곡>을 부른 아이들이 등가에 포함된 노래하는 24인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소략하나마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하면 <죽계사>나 <도동곡>은 향사에 사용된 의식요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의식 중 노래를 부르기로 정해진 각 절차가 시작될 때 부르기 시작하여 절차가 끝날 때 끝맺는 방식으로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봄가을로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올리고 가곡을 노래하며 영령을 맞이하고 보냈으니, 그 제도가 더할 나위 없이 잘 갖추어졌습니다.³⁵⁾”라는 황준량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악인 경기체가를 향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큰 의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5) 『죽계지(竹溪志)』, <행록(行錄)> 후(後), <부황학정준량서(附黃學正俊良書)>, “籩豆以享之春秋 歌曲以侑之送迎 制已極備 無以加之”.

4. 조선의 도통론(道統論)과 <도동곡>

주세붕은 1541년 7월에 풍기군수가 되었다. 그는 1542년(중종 37)에 큰 기근이 있었지만 백운동에 안향의 사당을 세우고, 1543년에 사당 앞에 서원을 세웠다. 이것이 백운동서원으로 뒤에 이황의 요청에 따라 사액(賜額)서원이 되면서 서원을 소수(紹修)라 칭하게 된다.

백운동서원의 사묘에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를 봉안하고 매년 봄 3월과 가을 9월에 향사(享祀)를 지냈다.

한 인물이 백성을 위한 공이 있으면 사(社)에 모셔 향사하고, 나라를 위한 공이 있으면 종묘(宗廟)에 모셔 향사하며, 학문과 ‘도’를 위한 공이 있으면 문묘에 모셔 향사하는 것이 유교 사회에 통용되는 제사의 원칙이다.³⁶⁾ 살아 있을 때의 공(功)을 기준으로 제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사를 통해 그들의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³⁷⁾. 안향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려시대에 문묘에 종사되었고, 백운동서원에서 향사를 받게 되었다.

이 향사의 행례 중 향을 올릴 때 <죽계사>를 부르고, 3번 잔을 올리는 삼헌례를 행할 때 <도동곡>을 불렀다.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皇帝)·요순(堯舜)이 (재창(再唱))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니, 그 광경 어떠한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중(中)을 잡을 수 있다는 말. 아,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이것일 뿐이로다.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과 고요(皋陶)·이윤(伊尹)·주공(周公)·소공(召公). (재창) 군신이 서로 만났으니 그 광경 어

36) 이승환, 『도통 유학의 참정신을 잇는 계보』,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61면.

37) 이옥, 『조선시대 제단과 국가의례』, 창비, 2009, 64면.

떠하고.

하토(下土)가 아득하니 상제께서 이를 걱정하사 우정대인(圩頂大人)을 수사(洙泗) 위에 내리시니 만고 연원이 그치지 아니하도다.

안연(顔淵)의 사물(四勿)과 증자의 삼성(三省)이여.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으려 함에 더욱 견고하며 앞에 보이는 듯하다가 문득 뒤에 있도다. 성인을 배우며 수고로움을 잊으셨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따라야 할 것은 하늘이 명한 성(性)이며 함양해야 할 것은 호연(浩然)한 기운. (재창) 지성무식(至誠無息)이 근본이니라.

광풍제월(光風霽月) 서일상운(瑞日祥雲). (재창) 도통이 끊어진 기나긴 날에 어떻게 아셨을까?

사람 욕심 견잡을 수 없어 하늘까지 뒤엎었도다. 1천 500년 만에 주자께서 태어나시어 경(敬)으로 근본 세워 큰 언덕 만드시고 옛 성인 이으시고 후학을 열어 주셨도다. 아! 공자와 다를 바 있으랴.

삼한 천만 년에 진유(眞儒)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요 죽계수(竹溪水)가 염수(濂水)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호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여 모신 그 공이 크시어 우리나라에도 도(道)가 전하여졌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죽계는 소백산에서 나오고 염계(濂溪)는 여산(廬山)에서 나온다³⁸⁾.

1장에서 8장까지 먼저 중국의 도통(道統)을 서술하였다. 학계에서는 통상

38) 『죽계지(竹溪志)』, <행록(行錄)> 후(後), <도동곡(道東曲)>, “伏羲神農黃帝堯舜 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人の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禹湯文武皐伊周召 再唱 偉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下土茫茫 커늘 上帝是憂 許사 圩頂大人을 洙泗우허 나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칠뉘 업스랴다/ 顔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率허리 天命之性 養 허리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이아 본니이다/ 光風霽月 瑞日祥雲 再唱 偉 그쳐던 긴날 엇데허야 니으신고/ 人欲이 橫流 허야 浩浩滔天일식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으로 本을 세어 大防을 밍그르시니 偉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르시리잇거/ 三韓千萬古에 眞儒를 나리오시니 小白이 廬山이요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는 小分네 이리어나와 尊禮晦庵이 그공이 크샤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竹溪出小白山 濂溪出廬山”.

주자가 도통관념의 창시자라고 인정한다³⁹⁾. 주자는 흔히 요(堯)-순(舜)-우(禹)-탕(湯)으로 일컬어지는 성왕의 계보를 위로 복희(伏羲)-신농(神農)에게 지 소급하였다⁴⁰⁾. 또한 원래 성왕의 계보였던 도통을 공자(孔子)-안회(顏回)-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학인의 계보로 전환시켰다⁴¹⁾.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⁴²⁾에 성리학적 해석을 가하여 인심과 도심의 차이를 설명하였다⁴³⁾.

주세붕은 이를 1장에서 8장까지 차례로 서술하고, ‘마지막 9장에서 안향이 주자학을 도입한 공로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국의 도통을 밑에 서술되는 인물은 단순히 도학자라는 의미를 넘어 도통의 계승자라는 의미를 지게 된다.

이는 ‘1517년(중종 12)에 성균관 생원 권진(權鎭)이 정몽주와 김굉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상소를 하면서 중국의 도통을 먼저 언급하고 그 밑에 정몽주를 서술하여 요순에서 시작된 도통을 정몽주가 계승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의 도통 밑에 서술된 정몽주는 단순히 훌륭한 도학자를 넘어 도통의 계승자로 인정되었다’⁴⁴⁾.

중종(中宗)대에 조광조(趙光祖)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정몽주(鄭夢周)와 김굉필의 문묘(文廟) 종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독자적인 도통론(道統論)이라는 이념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문과 절의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사람과들에 의해 조선의 도학 계보는 ‘정몽주-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로 정립되었다⁴⁵⁾. 이는 도학이 최치원(崔致遠), 설총(薛聰), 안향을 통해 이계현(李齊賢)-이색(李穡)-권근(權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세종(世宗)대의 논리를 대체한 것이다⁴⁶⁾.

39) 임명희, 『‘도통’ 개념의 출현과 도학적 도통 관념이 함의』, 서울대학교, 『인문논총』68집, 2002, 321면.

40) 『대학(大學)』,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 “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

41) 김상준, 앞의 책, 165면.

42)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43) 벤자민 엘먼 저,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109면.

44) 김용현, 『조선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프로네시스, 2010, 59~63면.

45) 김영두, 『선조초 문묘종사 논의와 도통론 변화』,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31, 2008, 331면.

46) 김용현, 앞의 책, 64면.

그러나 주세붕은 당시 사림의 이러한 공론과는 달리 안향이 조선 유학의 조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주세붕(周世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公 안유)의 그 올바른 지향이 삼한(三韓)의 오염되었던 구습(舊習)을 말끔히 씻어 버렸다고 하겠는 바, 익재(益齋)나 포은(圃隱)과 같은 제공(諸公)들은 모두 그 여파(餘波)가 점차 불어나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2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에 다시 천리(天理)가 밝아지고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힘이라고 하겠는가. 공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동방(東方)의 도학(道學)의 조종(祖宗)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유독 문묘에 종사(從祀)할 수가 없단 말인가. 『고려사』에서는 일컫기를, ‘안모(安某)가 섬학전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문묘에 종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비루함이 바로 이와 같다.”⁴⁷⁾

안향이 고려시대에 문묘에 종사(從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섬학전을 설치하고 학문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주세붕은 당대의 이러한 평가를 매우 비루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이 9장의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호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여 모신 그 공이 크이어 우리나라에도 도(道)가 전하여졌으니’ 라는 구절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향에 대한 주세붕의 이러한 평가는 당시 사림의 공론에 따라 정립된 도통계보와는 다른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견해였다. 이는 후대의 이이가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안향(安珦)은 도학에 관계가 없으니, 의리대로 정한다면 이 세 분은 다른 곳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옳지만 문묘에 배향함은 잘못이다⁴⁸⁾.”라고 언급한 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15년 계축(癸丑), 2월 9일, “致遠 薛聰 安珦之後 唯吾益齋李齊賢唱鳴道學 牧隱李穡 實傳正印, 臣師陽村權近 獨得其宗”.

47) 『임하필기(林下筆記)』권12,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익재문답(益齋問答)>, “周世鵬曰 公之所向之正 一洗三韓舊染 益齋圃隱諸公 皆餘波所漸 爾來二四百年 天理之復明 文風之大興 其誰之力 公眞可謂東方道學之祖 是獨不可以從祀乎 麗史稱安某置瞻學田 以此從祀 其陋類此”.

48) 『울곡전서(栗谷全書)』권 29, <경연일기(經筵日記)>2, “前朝從祀者 鄭文忠一人外 其餘

주세붕 자신이 자신의 작품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 사의가 없다고 말했으나 향사에서 가창된 <도동곡>은 이처럼 당시 사림의 공론과 달리 도동에 관한 주세붕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논어(論語)』의 <술이(述而)> 편에서 언급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이 오직 예로부터 내려온 역사적 사실을 정리했을 뿐 아무 것도 새로 작위해서 더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되지만 그러한 편집의 결과가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⁹⁾.

결국 주세붕의 경기체가를 둘러싼 당대의 논쟁은 경기체가 그 자체가 아니라, 주세붕의 경기체가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도동곡(道東曲)>이 백운동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거행했던 향사(享祀)의 의식요(儀式謠)로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죽계지(竹溪志)』에 수록된 <제식(祭式)>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례 속에서 <도동곡>의 향유방식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논증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주세붕의 <도동곡>은 백운동서원에서 봄(3월)과 가을(9월)에 행해지는 향사에서 가창된 의식요이다. <도동곡>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3장으로 나누어 초헌·중헌·종헌을 행할 때 불렀던 노래이다. 노래는 잔을 올리는 절차가 시작될 때 부르기 시작하여 절차가 끝날 때 노래도 함께 끝났을 것이다. 노래하는 방식은 제례약장의 등가(登歌)에 편재된 노래하는 자 24인이 등가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합창하였을 것이다. <도동곡>은 기존의 논의처럼 유흥적 상황에서 향락적 성향을 고취하고자 집단창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신과

薛聰 崔致遠 安珣則無與於斯道 如欲裁之以義 則斯三人者 可以祀於他所 而不可配於文廟也.

49)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1, 140면.

인간의 조화를 위해 부른 의식요이다.

둘째 <도동곡>은 조선시대 중종 때 확립된 조선의 도학계보에서 정몽주를 유학의 조종으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안향을 조선유학의 조종으로 평가한 주세붕의 견해를 담고 있다. 주세붕은 ‘술이부작’의 방식으로 1장에서 8장까지 주자에 의해 성립된 도학의 중국 쪽 도통계보를 서술하고 마지막 9장에 안향의 공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세붕의 경기체가를 둘러싼 당대 논쟁의 일단은 경기체가 그 자체가 아니라, 주세붕의 <도동곡>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國朝寶鑑』
『國朝五禮序例』
『大學』
『書經』
『栗谷全書』
『林下筆記』
『竹溪志』
『中宗實錄』
『退溪集』

2.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무형문화유산자원1-도동곡, 창극, 옹기장』, 2013.
금장태, 『한국유교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3.
박경주, 『경기체가연구』, 이회문화사, 1996.
안자산,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1984.
이옥,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조규익, 『고려속악가사 · 경기체가 · 선초악장』, 한샘, 1993.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청계, 2007,

3. 논문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9, 1999. 16
9~196면.
길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11, 1997. 107~138면.
김문기, 「서원교육과 신재 주세붕」,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38, 2005. 1~26
면.
김영수, 「주세붕의 경기체가 연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19,
2003. 257~305면.

- 류속영, 「16세기 경기체가 후절의 분리 독립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20, 2010. 331~362면.
- 박경주, 「상촌 이복로의 <화산별곡>과 <구령별곡>이 지닌 16세기 경기체가로서의 위상탐구」, 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40, 2011. 35~64면.
- 박현숙, 「유교식 제례의 종교적 특성과 <풍운퇴우악장> 연구」,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문학과 종교』16권 1호, 145~164면.
- 우응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황준량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순천향어문학연구회, 『순천향어문논집』5, 1998. 295~313면.
- 윤석현, 「경기체가의 소멸동인 소고: 16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송실어문학회, 송실어문』11, 1994. 131~152면.
- 전재강, 「주세붕문학의 다원적 창작국면과 정합적 성격」, 한국시조학회, 『시조학논총』29, 2008. 287~304면.
- 전재강, 「주세붕의 문예관과 그 시가의 성향」, 한국어문학회, 『어문학』65, 1998, 287~304면.
- 정재호, 「주세붕론」,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103, 1997. 29~54면.
- 조규익, 「주세붕의 국문노래 연구-장르적 특질과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한어문교육』1, 1993. 153~171면.
- 조규익, 「조선조 도의가백의 일단(一):주세붕에서 고응척까지」,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3, 1997. 3~36면.
- 최용수, 「주세붕의 경기체가 연구:형태변이의 양상과 창작배경」, 배달말학회, 『배달말』30, 2002. 273~296면.
- 최용수, 「경기체가에 대한 주세붕의 인식태도」,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38, 2001. 247~259면.
- 최재남, 「16~17세기 향촌 문화공간의 미학과 시가문학」, 한국시가학회 편『시가사와 예술사의 관련양상Ⅱ』보고사, 2002, 81~102면.

Study on <DoDongGok> by Joo, Se-bung

Park, Hyun-sook

This study first focuses on the fact that <DoDongGok>, composed by Joo, Se-bung is used in HyangSa (an elaborated expression with food to spirits of the dead), Baekwoon-dong Seowon (private Confucian academy founded in Baekwoon province). Then, based on the sacred rite in JookGeJi, this studied out the meaning and role of <DoDongGok> by considering specific ceremony. In general, HyangSa at most private Confucian academies took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SeokJeonEui of Munmyo (Confucius's Shrine). To explain the reason why <DoDongGok> is composed of nine chapters, this study first compared ritual ceremonies in JookGeJi with SeokJeon ceremonies both in 『GukJoOhRyeEui』 and 『GukJoOhRyeSeoRye』, then, it discussed how <DoDongGok> was sung during the HyangSa ceremony in reality.

<DoDongGok>, a total of nine chapters, was sung in the process of libation to the god during HyangSa ceremony held both in spring and autumn at Baekwoon-dong Seowon. More specifically, the nine chapters were divided in three. The first three chapters were presented at the first libation (ChoHeon), and the second three chapters were recited at the middle libation (Aheon). Finally, the last three chapters were performed at the final libation (JongHeon).

<DoDongGok>predicates Joo, Se-bung's point of view that AnHyang should be considered the main purpose on reciting Sijo in Chosun Confucianism while Jeong, Mong-ju was recognized as the original from the list of scholars who legitimately transmit the Dohak established during JungJong era.

The main plot of DoDongGok was superficially outlined by Confucian scriptures, however, it put focus on good deeds of An-hyang, the object of rites, to be widely-known.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theory of Dotong (Legitimate Transmission of the Orthodoxy) in <DoDongGok>, from the viewpoint when it is

closely connected to AnHyang, could bring out a question of ‘handing down genealogy of Confucian enlightenment’ which surpasses acceptance or general knowledge.

Keywords : Gyeonggichega(Gyeonggi-style Song), seowon(private Confucian academy), Joo, Se-bung, DoDongGok, Munmyo(Confucius's Shrine), Dotong(Legitimate Transmission of the Orthodoxy), ChoHeon (presentation of the first libation), Aheon (presentation of the second libation), JongHeon (presentation of the last/final libation)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
